

標本 · 根結 이론과 임상응용에 관한 考察

장 준혁 · 김 경 호*

ABSTRACT

A Literature Study on PyoBon · GeunGyul Theory

Jun-Hyounk, Jang · Kyung-Ho, Kim*

PyoBon · GeunGyul - one of the twelve regular meridians theory - play a important role on the principle of point selection and point prescription in acumoxibustion.

PyoBon explain the connection of the concentration and diffusion of channel *qi*, GeunGyul explain the relation of both poles of channels flow.

So, Geun and Bon means the starting point of channel *qi*, and Pyo and Gyul means the terminal point of channel *qi*.

But the flow of channel *qi* on PyoBon · GeunGyul different from today's circulation courses of twelve regular channels based on Kyungmaek(經脈) chapter of Youngchu.

Thus this study investigate the contents of PyoBon · GeunGyul and consider its connection with channel flow.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PyoBon · GeunGyul theory explain that the relation of the limbs and trunk at meridian and emphasize that the connection of meridian and the importance of the limb acupoints.
2. PyoBon · GeunGyul theory can be understandable in the view of the primordial *qi* and explain that the primordial *qi* of twelve regular channels acts from the limbs to the trunk.
3. PyoBon · GeunGyul theory is based on the system of primordial *qi* channel which circulates from fingers and toes facing toward heart or the head, different from today's circulation courses of twelve regular meridians.
4. PyoBon · GeunGyul theory act as a basis of principle of a part or distant point selection which applicated widely in acumoxibustion.

Key Word : PyoBon · GeunGyul theory, primordial *qi*, primordial *qi* channel flow, facing toward heart or the head, principle of a part or distant point selection.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실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I. 結 論

十二經脈의 이론중에는 標本·根結 이론이 있는데 이 理論은 장기적인 의료경험에서 古人들이 四肢末端의 經脈起穴이나 肘膝腕踝이하의 經穴이 대부분 특수하고 현저한 치료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總結하여 나오게 된 것으로 한 사람에게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며 四氣街이론과 함께 전신 特定穴과 임상에서 침구取穴 및 配方의 기초로 중요시되고 있다.¹⁾

根結은 經脈循行의 兩極이 相連된 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根은 經脈이 四肢에서 循行會合하는 根源이고 結은 經脈이 頭胸腹部에서 循行流走하는 歸結로 經脈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標本은 經氣가 집중되고 확산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本은 經氣가 匯聚하는 중심이고 標는 經氣가 확산하는 區域으로 經脈脈氣의 확산반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²⁾

또한 標本과 根結은 十二經脈의 循行 經路와 부위에 대한 이론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 이론적 기초위에서 體部の 俞穴이 局所부위의 질환뿐만 아니라 經氣가 유포되는 遠隔부위의 질환까지 치료하는데 응용된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론은 經絡 분포와 氣血 운행의 기초위에 經絡俞穴의 上下·內外의 상호 대응 관계를 설명하며 頭·面·胸·腹·背部와 四肢末端에 있는 俞穴이 治療에서도 上下·內外로 상호 영향을 미쳐 질병치료에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鍼灸臨床에서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³⁾

이에 대해 <靈樞·根結>篇⁴⁾(이하 <根結>)에서는 “……不知根結。五臟六腑，折關敗樞，開闔而走，陰陽大失，不可復取。”라 하고 <靈樞·衛氣>篇⁴⁾(이하 <衛氣>)에서는 “能知六經之標本者，可以無惑於天下。”라 하고 또한 <標幽賦>⁵⁾에서는 “更窮四根三結，依標本而刺無不痊”이라 하여 標本과 根結이 침구 임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경락학설의 중요한 내용임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根結>⁴⁾과 <衛氣>⁴⁾의 標本, 根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脈氣의 循

行과 起止가 四肢末端으로부터 軀幹을 향해 순행하는 체계로 현대 침구학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靈樞·經脈>⁴⁾(이하 <經脈>)의 周而復始하는 經脈氣血의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저자는 標本, 根結의 내용과 의미, 標本·根結과 十二經脈의 經脈흐름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및 考察

1. 標本의 내용과 의미

標本 이론은 <衛氣>⁴⁾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衛氣>⁴⁾의 내용을 보면 手足十二經의 本은 모두 腕, 踝관절 주위에 있고 足陽明經의 論述에서 구체적으로 厲兌穴을 本으로 제시한 것 외에는 本의 구체적인 穴位를 지명하지 않았고 本의 대체적인 부위만 제시하였으며 六陰經脈의 標는 背俞에 있고 六陽經脈의 標는 모두 頭面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衛氣>⁴⁾, <太素·經脈標本>⁶⁾과 馬元臺의 註解⁴⁾를 중심으로 그 부위와 구체적 穴位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 1)

이러한 標와 本의 字意에 대해서 <說文>에서는 標를 “木杪末也”라 하여 樹梢細末부분이라 하고 本을 “木下曰本”으로 基, 元, 初의 뜻을 가지고 根과 의미가 유사하다고 하였고¹⁾ 經絡學說중의 標本の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張⁷⁾은 “標本, 本末也”라 하였고 張⁴⁾은 “標者, 猶樹之梢杪, 杪絕而出于絡外之經路也. 本者, 猶木之根幹, 經脈之血氣, 從此而出也”라 하였다.

2. 根結의 내용과 의미

根結이론은 <素問·陰陽離合論>⁴⁾과 <根結>⁴⁾에서 처음 나오는데 <素問·陰陽離合論>⁴⁾에는 足三陰三陽의 根과 足太陽의 結이 기술되어 있고 <根結>⁴⁾에는 足三陰三陽의 根結에 대한 기록만

< 표 1 > 十二經의 標本

	本		標	
	部位	穴位	部位	穴位
足太陽	在跟以上五寸中	跗陽	兩絡命門. 命門者, 目也	睛明穴
足少陽	在竅陰之間	竅陰	在窓籠之前. 窓籠者, 耳也.	聽宮穴
足陽明	在厲兌	厲兌	在人迎, 頰挾頰顙也	人迎穴
足太陰	在中封前上四寸之中	疑是三陰交	在背膂與舌本也	脾俞, 廉泉
足少陰	在內踝上上三寸中	交信	在背膂與舌下兩脈也	腎俞, 廉泉
足厥陰	在行間上五寸所	疑是中封	在背膂也	肝俞
手太陽	在外踝之後	疑養老	在命門之一寸也	懸樞 (或攢竹)
手少陽	在小指次指之間上二寸	腋門	在耳後上角下外眦也	絲竹空
手陽明	在肘骨中上至別陽	曲池	在顏下合鉗上也	疑是頭維
手太陰	在寸口之中	太淵	在腋內動脈也	中府
手少陰	在銳骨之端	神門	在背膂也	心俞
手厥陰	掌後兩筋之間二寸中	內關	在腋下三寸也	天池

있고 手三陰三陽의 根結은 빠져있다. 이에 대해 <類經>⁷⁾에서는 “言足, 手已在其中矣”라고 하였는데 <根結>篇⁴⁾ 下段에 手足六陽經의 根溜注入의 내용이 있어서 手三陽의 根은 미루어 알 수 있다.

한편 구체적 穴位는 <素問·陰陽離合論>⁴⁾과 <根結>⁴⁾에는 足三陰三陽의 根穴位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結穴位는 명확하지 않고 주로 인체의 頭部와 軀幹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素問·陰陽離合論>⁴⁾과 <根結>⁴⁾, 馬元臺의 註解⁴⁾를 중심으로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 3, 4)

< 표 2 > 十二經의 根結

	靈樞·根結		素問·陰陽離合論	
	根	結	根	結
足太陽	根于至陰	結于命門. 命門者目也.	根起于至陰	結于命門
足少陽	根于竅陰	結于窓籠. 窓籠者, 耳中也.	根起于竅陰	
足陽明	根于厲兌	結于顙大. 顙大者, 鉗耳也.	根起于厲兌	
足太陰	根于隱白	結于太倉	根起于隱白	
足少陰	根于湧泉	結于廉泉	根起于湧泉	
足厥陰	根于大敦	結于玉英. 絡于臚中.	根起于大敦	
手太陽	根于少澤			
手少陽	根于關衝			
手陽明	根于商陽			

< 표 3 > 六陽經의 根·溜·注·入

經名	根	溜	注	入	
足太陽	至陰	京骨	崑崙	天柱	飛陽
足少陽	竅陰	丘墟	陽輔	天容	光明
足陽明	厲兌	衝陽	足三里	人迎	豐隆
手太陽	少澤	陽谷	少海	天窓	支正
手少陽	關衝	陽池	支溝	天牖	外關
手陽明	商陽	合谷	陽谿	扶突	偏歷

< 표 4 > 十二經의 根結穴位

經名	根部 穴位	結部 穴位
足太陽	至陰	睛明
足少陽	竅陰	聽宮
足陽明	厲兌	頭維
足太陰	隱白	中脘
足少陰	湧泉	廉泉
足厥陰	大敦	玉堂
手太陽	少澤	
手少陽	關衝	
手陽明	商陽	

이러한 根과 結의 字意에 대해서 <說文>에서는 根을 “木株也”라 하여 樹根의 古稱이라 하고 <廣雅釋詁>에서는 “始也”, “木也”라 하여 根이 事物始發의 意味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 結을 <說文>에서는 “締也”라 하였고 <廣雅釋詁>에서는 “續也”라 하고 <淮南繆稱>에서는 “要終也”라 하고 <淮南汜論>에서는 “聚也”라 하여 結에 聯續締結匯聚의 意味가 있다고 하였다.¹⁾

經絡 學說중에서 根結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楊上善은 <太素·經脈根結>⁶⁾에서 “根, 本也. 結, 繫也”라 하였고 張⁴⁾은 “根者, 經氣相合而始生. 結者, 經氣相將而歸結”이라 하였으며 馬⁴⁾는 “脈氣所起爲根, 所歸爲結”이라 하였고 張⁷⁾은 <類經>에서 “下者爲根, 上者爲結”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根結·標本은 古人이 比類取象의 방법으로 經絡脈氣의 始生과 結聚處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十二經중의 標는 頭面胸背 등의 상부에 있고 本은 四肢의 하부에 있으면서 四肢末端이 經絡의 本이 되고 氣血이 出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또 根結에는 根源과 終結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根은 四肢末端의 井穴을 가리키고 結은 頭面軀幹의 有關部位를 가리키며 그 방향은 사지말단에서 頭面軀幹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寶는 <標幽賦>⁵⁾에서 經脈의 根結을 四根三結이라 하여 十二經이 四肢末端에 根하므로 四根이라 하고 頭, 胸, 腹부의 三部에 結하므로 三結이라고 칭하였다.

이상의 <표 1>, <표 2>, <표 3>, <표 4>에서 十二經脈의 標本과 根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⁸⁾

첫째, 十二經脈의 本部和 足三陰, 三陽의 根部는 다 四肢肘膝以下에 있고 標部和 結部는 다 頭面과 軀幹에 있다.

둘째, 그 중에서도 六陽經脈의 標部는 頭面に 있고 六陰經脈의 標部는 모두 그 經脈에 소속된 胸部 募穴과 背部 俞穴부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標本과 根結은 둘 다 四肢와 頭面軀幹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여 四肢部는 根이 되고 本

이 되며 頭身部는 結이 되고 標가 되므로 四肢穴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둘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는데 먼저 部位上에서 보면 標本の 범위가 根結에 비해서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標本은 十二經이 다 구체적인 論述이 있는데 비해서 根結은 오직 足六經만으로 대표하고 있고 根은 五臟穴의 井穴과 동일한데 本은 肘膝以下の 일정부위를 지칭하고 있으며 結의 부위는 頭, 胸, 腹에 있는데 標의 부위는 頭, 胸, 腹외에도 背俞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의미로 보면 根結은 經脈循行의 兩極이 서로 連接되는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데 즉, 根은 經脈이 四肢에서 循行會合하는 근원이고 結은 經脈이 頭胸腹部에서 循行流注하는 歸結로 그 성질이 經脈徑路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標本은 經氣가 集中하고 擴散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즉, 本은 經氣가 모이는 중심이고 標는 經氣가 확산되는 구역으로 그 성질이 經氣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총괄하면 兩者는 같은 중에도 차이가 있어서 상호 보충하여 함께 經氣가 상하내외로 상용하는 원리를 밝히고 經絡循行路線에 중점을 두면서도 循行路線을 국한시키지도 않는다.²⁾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根結>과 <衛氣>의 標本, 根結의 내용은 그 脈氣의 循行과 起止가 四肢末端으로부터 軀幹을 향해 순행하는 체계로 <靈樞·經脈>의 周而復始하는 經脈 氣血의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根結>의 根, 溜, 注, 入은 <靈樞·本輸>의 五輸穴 순행과 유사한 면이 있음을 볼 수 있다.

3. 經絡元氣와 標本·根結의 관계

陸瘦燕은 <根結>과 <衛氣>의 標本·根結, 根溜注入과 <靈樞·經脈>篇의 經脈走行(즉, 현재의 十二經의 경맥주행)과의 불일치를 사지말단에서 起始한 脈氣가 점차 상부로 향하여 深入하면서 四肢肘膝關節이하로 영향을 미치거나 標本·根結

부위인 頸項部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 經絡 元氣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만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⁸⁾

<素問·離合眞邪論>⁴⁾에 經氣는 곧 眞氣라 하였고 眞氣에 대해서 <靈樞·刺節眞邪>篇⁴⁾에서는 “眞氣者, 所受于天, 與穀氣并而充身者也.”이라 하고 여기에 대해 張⁴⁾은 “所受于天者, 先天之精氣, 穀氣者, 後天水穀之精氣, 合并而充身者也.”라 하였으니 眞氣는 先天精氣에서 化生하는 元氣와 後天穀氣에서 化生하는 營衛之氣가 함께 合併해서 생성되는 氣로 形體를 충실하게 하고 전신을 영양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元氣에 대해서 李⁹⁾는 “元氣乃先身生之精氣也”라 하고 <難經·八難>¹⁰⁾에서는 “諸十二經脈者, 皆系于生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라 하여 十二經脈의 根本은 元氣임을 명시했고 그 실체는 腎間動氣임을 설명하고 있다.

營衛之氣, 즉 後天穀氣에 대해서 <靈樞·營衛生會>篇⁴⁾에서는 “人受氣于谷, 穀入于胃, 以傳與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其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 陰陽相貫, 如環無端”이라 하여 협의적으로 이해한다면 經脈內를 순행하는 營氣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靈樞·營氣>篇⁴⁾에서는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于胃, 乃傳之肺, 流溢于中, 布散于外, 精專者, 行于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라 하였는데 이로 보아 營氣는 경맥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臟腑를 영양하고 身形을 충실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적 기초가 된다.

이상으로 보아 비록 先天의 元氣와 後天의 穀氣가 본질적으로는 구별이 있다 하더라도 생리적으로는 相補相成하고 상호 뿌리가 된다. 따라서 元氣와 穀氣는 나눌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經絡의 氣도 이와 같아서 經絡元氣는 반드시 營衛之氣에 의존해서 生하며 營衛之氣는 반드시 經絡元氣에 의존해서 成한다.

이는 곧 經絡元氣는 營衛之氣의 끊임없는 充實이 없으면 반드시 耗損되어 枯竭하고 營衛之氣는

經絡元氣의 작용이 없으면 壅滯하여 不行하므로 經絡元氣와 經絡중에 流行하는 營衛之氣는 統一되어 나눌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陸⁸⁾은 <衛氣>의 標本說과 <根結>의 根結說은 이상에서 말한 經絡元氣와 內臟 및 俞穴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靈樞·九鍼十二原>篇⁴⁾에서 “五臟有六腑, 六腑有十二原, 十二原出于四關”이라 한 것에서 原은 腎間動氣인 元氣가 生發하는 原穴을 가리키고 그 意義는 元氣가 머무는 곳이라고 하였다. 또한 四關은 四肢肘膝關節로 五臟의 元氣를 받는 곳이므로 經脈의 元氣는 안으로는 生氣之元으로서 生命의 根本이 되는 것 외에도 그 작용은 四肢肘膝關節이하의 四關에 반영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十二經脈의 本部 및 足三陰·三陽의 根部가 모두 四肢末端에서 나오는 관계와 완전히 같다고 하였다.

또 經絡의 元氣와 臟腑의 관계도 이러한 標本과 根結이론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六陰經脈의 標部는 다 胸部의 募穴 혹은 背部의 俞穴處에 있는데 이것은 <靈樞·背腧>⁴⁾의 “五臟之輸出于背”, 張⁷⁾의 “五臟居于腹中, 其脈氣俱出於背之足太陽經”, 李⁹⁾의 “凡治腹之募, 皆爲原氣不足”등에 근거하여 背俞穴은 五臟의 元氣가 注輸하여 나오는 부위이고 募穴은 臟腑의 元氣가 募聚하는 곳임을 알 수 있으니 陰經의 經絡元氣는 四肢本部로부터 本臟에 작용한 후에 足太陽經의 背俞穴에 注輸하여 나오고 五臟의 募穴에 募聚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靈樞·九鍼十二原>⁴⁾에서 “十二原者, 五臟之所以稟受三百六十五節氣味也”라 하였는데 이는 五臟에 소속된 十二原穴이 나오는 四關부위가 六陰經脈의 本部 所在處이며 五臟이 소속된 經脈의 元氣를 받는 곳임을 설명하는 것이라 하였다.

標本·根結이론의 또 다른 특징은 手足陽經의 標部는 모두 頭面에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陸은 六陽經脈의 元氣는 本腑에 직접 작용하지 못하고 단지 頭面등의 경락 순행처에만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

었다.

즉, 六腑와 經脈元氣의 관계에 대하여 <靈樞·本輸>⁴⁾에서는 “六腑皆出足之三陽, 上合于手者也”라 하였는데 이는 六腑之氣는 足三陽經에서 나와서 위로 手三陽經에서 합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大腸, 小腸皆屬于胃, 胃足陽明也”, “三焦者……太陽之別也”라 한 것은 手三陽經에 속한 大腸, 小腸, 三焦의 三腑之氣는 다 足陽明, 足太陽之氣를 받은 후에 위로 手陽明, 手太陽, 手少陽에 합해서 本經의 사지말단에서 나오는 經絡元氣와 相合해서 標部(頭面)에 작용하는 관계를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十二經脈의 元氣의 작용은 사지말단으로부터 軀幹, 內臟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手足三陰經脈의 元氣는 사지말단에서 직접 本臟에 작용하고 나서 背部에 있는 五臟의 俞穴에 注輸하여 나오고 五臟의 募穴에 募聚한다. 足三陽經의 元氣는 頭面軀幹部の 經脈循行所過處에 작용하는 것 외에도 一部の 脈氣는 合穴處에서 별도로 內腑로 들어가 六腑와 相通한 후에 背部의 六腑의 俞穴에 注輸하여 나오고 六腑의 募穴에 募聚한다. 그러나 手三陽經의 元氣는 해당 本腑에 深入하지 못하고 頭面, 軀幹部の 經脈循行處에만 작용하고 그 本腑의 氣는 모두 足三陽經의 合穴處에서 別入하여 手部的 本經에 합하는 것이다.

이상의 陸⁸⁾의 견해는 標本·根結 이론을 경락의 經氣중 原氣의 작용으로 해석하여 사지말단의 經穴이 頭面 軀幹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적절히 설명하였으나 經氣 구성요소중의 하나인 原氣가 經氣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을 가지는데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向¹¹⁾은 陸이 <靈樞>의 經氣가 先天의 原氣와 後天의 營氣사이의 본질적인 구별이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靈樞·經脈>을 十二經脈의 正經으로 인식하고 十二原을 <經脈>의 營氣生發의 일개 原穴로 인식하고 해석한 데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는 經絡중의 原氣와 營氣가 본질상으로는 구별이 있더라도 經脈중

에서는 兩者가 서로 併合되어 하나의 經氣가 된다고 한 견해는 <靈樞·本輸>의 經穴을 <靈樞·經脈>의 五輸穴로 잘못 파악하여 經氣循行에서 나타나는 모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靈樞·刺節眞邪>⁴⁾의 “眞氣者, 所受于天, 與穀氣并而充身者也”에 대해 所受于天은 부모의 先天之精氣가 主가 되고 天空之氣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并而充身”은 일반적으로 併合하여 하나의 經氣가 되어 充身하는 것으로 “并存”, “竝列”하여 充身하는 것, 즉 原氣系統, 營氣系統이 并存而充身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합해져서 하나의 계통이 되어 充身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并而充身”에서 并字의 의미를 內經에서 살펴보면 <靈樞·本輸>⁴⁾에서 “太陽之別也, 上踝五寸, 別入貫膈腸, 出於委陽, 并太陽之正, 入絡膀胱”라 하였는데 그 중의 “太陽之別”, “并太陽之正”에서 “并”字의 의미는 하나는 正으로 하나는 別로 兩者는 인체에 각각 계통이 있어서 서로 并列 혹은 并存하는 것이지 兩者가 완전히 併合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靈樞·脹論>⁴⁾에서는 “衛氣之在身也, 常然并脈……”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并字도 비록 “合之于眞三合而得”의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原氣, 營氣, 衛氣가 합해서 하나의 經氣가 되거나 原氣, 營氣가 합해서 하나의 經氣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각 계통이 있어서 단지 脈行의 變異에서 때때로 서로 并해서 病이 되는 것이지 兩氣, 혹은 三氣가 합해서 하나의 經氣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向은 營氣와 原氣는 發源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구별이 있으며 인체에는 二氣가 并存하는 經氣가 있는 것이지 併合해서 하나의 經氣가 되어 充身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十二原出于四關에 대해서도 <難經·六十六難>¹⁰⁾에서 十二經의 原穴에 대해 “十二經皆以 俞爲原者何也? 然, 五臟俞者, 三焦之所行, 氣之所留止也. 三焦所行止俞爲原者, 何也? 然, 臍下腎間動氣者, 人止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于五臟六腑. 原者, 三焦之尊號也, 故所止輒爲原.”이라 한 것과 <難經·八難>¹⁰에서 “諸十二經脈者, 皆系于生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 故原氣者, 人之根本也, 根絕則莖葉枯矣”라 하고 <難經·三十六難>¹⁰에서는 “命門者, 諸精神之所舍, 原氣之所系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系胞”라 한 것에 근거해 볼 때 <靈樞·九鍼十二原>의 十二原이 人體의 先天原氣가 生發하는 原穴임은 확실하지만 “十二原出于四關”은 全篇의 함축된 의미와 <靈樞·本輸>의 “井, 榮, 俞, 原, 經, 合”의 배열로 볼 때 原氣가 井穴에서 發出하여 原穴에 이르러 盛하고 合穴에 이르러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出, 溜, 注, 過, 行, 入”의 向心脈氣를 형성하고 “五臟五俞, 六腑六俞”로 發出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原穴에서만 發出하는 것은 아니므로 營氣의 흐름인 <靈樞·經脈>속에 原穴 및 그 유관되는 五輸穴을 배열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向은 標本·根結을 고대의 경락체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靈樞>중의 標本, 根結, 次脈, 別脈등에서 그 脈氣의 循行起止가 <靈樞·經脈>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고대의 경락체계가 두가지 발전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向은 고대의 경락체계는 <足臂十一脈灸經>에서 <靈樞·本輸>로 발전하는 向心經脈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靈樞·經脈>으로 발전하는 循環經脈으로 나뉘어 변화해 왔는데

이 중 向心經脈은 原氣를 중심으로 하고 循環經脈은 營氣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陸瘦燕은 경락중의 原氣와 營氣가 본질적으로는 다르다고 인식하고도 經脈중에서는 합해져서 하나의 經氣가 된다고 생각하여 서로 다른 경락체계인 <靈樞·本輸>의 經穴을 <靈樞·經脈>의 특정혈 즉, 五輸穴로 인식해버린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¹¹⁾

따라서 標本·根結은 “五臟六腑所出之處”의 臟腑本氣(즉, 原氣, 精氣, 腎間動氣)가 체표를 향해

輸出하는 “經脈十二, 絡脈十五” 및 <靈樞·本輸>의 井, 榮, 輸, 經, 合을 正經으로 하고 이와 함께 別脈(次脈)이 向心循行의 經穴, 病候, 診法, 治法의 독립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靈樞·本輸>를 중심으로 한 向心經脈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이들은 標本과 根結이 原氣의 작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陸瘦燕은 原氣와 營氣가 經脈속에서 합해져서 經氣가 되므로 經脈의 흐름은 循環 流走한다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向은 原氣와 營氣는 전혀 별개의 경맥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原氣를 營氣에 통합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4. 標本·根結과 內經중의 向心經脈走行說

<靈樞·根結>篇⁴⁾에 “九鍼之玄, 要在終始. 故能知終始, 一言而畢, 不知終始, 鍼道咸絕”이라 하고 <靈樞·九鍼十二原>⁴⁾에서는 “迎而奪之, 惡得無虛, 追而濟之, 惡得無實, 迎之隨之, 以意和之, 鍼道畢矣”라 하고 <靈樞·小鍼解>⁴⁾에서는 “迎而奪之者, 瀉也, 追而濟之者, 補也”라 하여 經脈의 起點과 終點 및 氣血이 經脈을 순환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迎隨補瀉”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陰陽經脈의 氣血흐름이 의가들의 중요한 연구과제였는데 <內經>이후로 지금까지는 모두 <靈樞·經脈>의 十二經脈循行을 규범으로 하여 침구학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1973년말 호남성 長沙의 馬王堆3호 漢墓라고 불리는 고분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5種의 의학관계 帛書들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은 고대의 경락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는데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을 비교해 보면 前者는 文字가 비교적 간단하나 後者는 문자가 비교적 상세하여 <靈樞·經脈>편에 매우 가깝게 기술되고 있어서 <足臂十一脈灸經>이 <陰陽十一脈灸經>보다 成書년대가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內經 이전의 저작으로 추

측할 수 있다.^{11,12)}

이상의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이 정리 발표된 후로 帛書의 經脈走行이 <靈樞·經脈>篇의 經脈走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특히 <足臂十一脈灸經>에서 十一脈이 사지말단에서 頭面軀幹을 향해 循行하는 기록은 <靈樞·本輸>편의 脈名과 井, 榮, 輸, 經, 合의 경맥흐름과 일치하고 <靈樞·經脈>의 十二經이 手足, 足手, 陰陽, 陽陰의 순서로 循環하는 이론과 큰 차이가 있는데 帛書의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을 <靈樞·經脈>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經脈의 수에 있어서 <靈樞·經脈>은 十二經脈이 있고 帛書에는 手厥陰經이 빠진 十一脈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靈樞·本輸>와 <靈樞·陰陽繫日月>에서도 十二經脈을 설명하면서 단지 十一脈名만 말하고 手厥陰脈은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十一脈이 발전하여 <靈樞·經脈>의 十二經脈이 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經脈의 命名을 보면 <靈樞·經脈>에서는 十二經脈을 命名하는데 手足으로 陰陽을 나누고 장부를 결합하였는데 <足臂十一脈灸經>에서는 足臂로 陰陽을 구별하고 장부명칭을 결합하지는 않았다. 특히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심지어 어떤 經脈에서는 음양을 사용하지 않고 “肩脈”, “耳脈”, “齒脈” 등과 같이 직접 부위를 명칭으로 삼고 있다.

셋째, 經脈의 순행방향을 살펴보면 <足臂十一脈灸經>은 사지말단에서 軀幹의 胸腹 혹은 頭面을 향하는 向心性이고 <陰陽十一脈灸經>은 肩脈과 足太陰脈이 위에서 下로 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지말단에서 軀幹을 향하는 向心性이며 <靈樞·經脈>은 반은 向心性으로 순행하고 반은 遠心性으로 순행하면서 周而復始하는 순환계통을 이루고 있다.

넷째,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脈은 각자 독립되어 서로 관계가 없으며 모두 체표에 분포하고 있고 屬臟絡腑, 屬腑絡臟하는 規律이 없는데 반해 <靈樞·經脈>에서는 상

용하는 臟腑와 서로 連接하고 脈과 脈간에도 표리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다섯째,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는 “經”자가 없으며 “手厥陰脈”도 없고 “灸”만 말하였지 “鍼”은 말하지 않았다. <靈樞·經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經脈”二字가 나오고 “手厥陰脈”이 첨가된 十二經脈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鍼法”도 나타난다.^{2,11)}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2종의 帛書는 <靈樞>이전의 경락체계의 원형으로 <靈樞>는 이들을 기초로 하여 발전했다고 추측된다.

한편 <靈樞> 각 편에서도 經絡의 走行이 사지말단으로부터 구간을 향하고 있는 2종 帛書와 같은 向心性 經脈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靈樞·本輸>⁴⁾에서는 각 經脈의 五輸穴이 사지말단에서 起始하여 向心性으로 순행하고 <靈樞·根結>⁴⁾과 <靈樞·衛氣>⁴⁾의 標本과 根結은 사지를 根本으로 하고 있으며 <靈樞·脈度>⁴⁾에서는 經脈장도를 논하면서 모두 사지로부터 상부를 향하여 측정하였고 <靈樞·經別>⁴⁾에서는 十二經別의 다수가 사지에서부터 개시하고 있고 <靈樞·經筋>⁴⁾에서도 十二絡脈은 四肢를 위주로 하고 있고 十二經筋의 주행이 모두 四肢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인들은 경락의 논술에서 사지를 중점으로 삼고 사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頭面軀幹과의 관계를 論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논술은 經絡學說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馬¹³⁾는 經絡의 流走路線에 대해 <足臂>에서는 足→手の 순서로 <陰陽>에서는 足陽脈→手陽脈→足陰脈→手陰脈의 순서로 발전하고 <足臂>의 간단한 主治症에서 더욱 세밀해진 <陰陽>의 是動病, 所生病으로 발전하고 <陰陽>에서는 肩脈, 足太陰脈의 遠心性 경맥이 나타나 <靈樞·經脈>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하여 <陰陽>에는 없는 奇經八脈, 絡脈, 孫脈, 經別, 經筋 등의 인체를 구성하는 완전한 하나의 경락체계인 <靈樞·經脈>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 向¹¹⁾은 <足臂>와 <陰陽>

은 같은 분묘에서 동시에 출토되어 그 변화과정을 무시하고 같이 보관할 수 없다는 점과 <足臂>에는 숫자가 있는데 <陰陽>에는 숫, 鍼자가 모두 없다는 점에서 임상응용의 발전과정을 볼 수 없는 점과 <靈樞>중에 <邪客>, <根結>, <經筋>, <衛氣>등의 向心性 순행노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足臂>가 <陰陽>으로 변화된 다음 <經脈>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足臂>→<本輸>, <陰陽>→<經脈>의 두가지 계통으로 경락체계가 발전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靈樞>에는 <靈樞·本輸>를 중심으로 한 向心性으로 순행하는 原氣流走路線과 <靈樞·經脈>을 중심으로 한 營氣의 周而復始하는 營氣流走路線의 두가지 경락체계가 混在하고 있고 <靈樞>중의 標本, 根結, 次脈, 別脈등의 내용은 모두 <足臂十一脈灸經>의 向心性 경맥이 변화 발전한 흔적이라고 하였다.

즉, 標本과 根結은 <靈樞·經脈>의 循環性 營氣 經脈 體系에 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靈樞·經脈>의 체계와는 다른 <足臂十一脈灸經>에서 <靈樞·本輸>로 발전한 向心性 原氣 經脈 體系에 근거하여 이해해야만 타당하다고 하였다.

根結에 관한 經文을 살펴보면 <素問·陰陽離合論>에는 足六經의 根이 있고 足太陽 一經의 結이 있고 手六經의 根結은 없는데 그 내용으로 보아 <素問·陰陽離合論>의 根結은 불완전하므로 초기형태의 根結說이라고 볼 수 있는데 <靈樞·根結>에서는 足六經에 手三陽의 根, 結이 더해지고 手三陰의 根結은 빠져있는데 根結에 관한 記述뒤에 “此所謂十二經者”라는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十二經의 根結에 대한 記述이다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靈樞·根結>篇은 <素問·陰陽離合論>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상세하므로 <靈樞·根結>篇이 十二經 根結의 초기 原形이라고 볼 수 있고 <靈樞·九鍼十二原>의 “經脈十二, 絡脈十五”의 초기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靈樞·根結>의 9개 根은 <靈樞·本輸>의 井과 穴名, 部位가 완전히 일치하고 따라서

手三陰의 根도 <靈樞·本輸>의 井과 일치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根과 井은 모두 各經 脈氣가 나오는 첫 번째 穴로 <靈樞·根結>은 根, 溜, 注, 入, 結의 向心 脈氣로 구성되어 있고 <靈樞·本輸>는 井, 榮, 輸, 原, 經, 合, 別絡, 別脈(次脈)의 向心 脈氣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靈樞·根結>의 根溜注入중에서 入의 穴名은 <靈樞·本輸>의 次脈穴名과 <靈樞·經脈>의 十五絡穴名과 완전히 동일하므로 <靈樞·根結>의 向心性 經穴과 <靈樞·本輸>의 向心性 經穴간에는 선후의 변화흔적이 있고 <靈樞·根結>과 <靈樞·本輸>간에는 正經과 別絡의 변화 흔적이 남아있으므로 <靈樞·經脈>의 十五絡 經文은 <靈樞·本輸>篇에 있어야만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5)

따라서 <靈樞·根結>篇이 발전해서 <靈樞·本輸>의 五輸穴이 되고 또 발전해서 次脈과 別絡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本輸>篇안에 <根結>篇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靈樞·本輸>는 <靈樞·根結>에 비해 더 완전한 형태로 十一經의 井穴이 모두 갖춰져 있으므로 <靈樞·根結>篇이 <靈樞·本輸>로 변화했고 <靈樞·本輸>는 <靈樞·根結>篇의 向心 脈氣의 완성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標本の 經文을 살펴보면 十二經의 標本은 <靈樞·衛氣>篇에 실려있는데 <衛氣>篇은 “其浮氣不循經者衛氣”의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標本の 내용을 살펴볼 때 衛氣의 계통에 속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또한 <靈樞·衛氣>篇을 <靈樞·背俞>篇 뒤에 배열해보면 標는 足太陰, 少陰, 厥陰, 手少陰은 모두 각 背俞에 있고 本은 모두 <靈樞·本輸>의 五輸에 있으며 足三陽의 標는 <靈樞·根結>의 結部와 일치한다. 따라서 十二經의 標本과 根結은 <靈樞·經別>과 <靈樞·背俞>에 함께 통하고 있다.¹¹⁾

또한 標本이 <甲乙經>에서는 “十二經標本”에

실려있고 <太素>에서는 “經絡標本”에 그 내용이 있으며 <類經>에서는 “諸經標本氣街”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內經>에서 十二經의 標本에 관한 내용이 <靈樞·衛氣>편에 들어가 있는 것은 篇次가 섞인 것이라고 사료된다.

<표 5> <根結>, <本輸>, <經脈>篇의 비교

經名	篇名	井	榮	俞	原	經	合	入/次脈/十五絡
足太陽	<根結>篇	(根)至陰			(溜)京骨	(注)崑崙		(入)天柱, 飛陽
	<本輸>篇	(出)至陰	(溜)通谷	(注)束骨	(過)京骨	(行)崑崙	(入)委中	(次脈)天柱
	<經脈>篇							(別)飛陽
足少陽	<根結>篇	(根)竅陰			(溜)丘墟	(注)陽輔		(入)天容, 光明
	<本輸>篇	(出)竅陰	(溜)俠谿	(注)臨泣	(過)丘墟	(行)陽輔	(入)陽陵泉	(次脈)天容
	<經脈>篇							(別)光明
足陽明	<根結>篇	(根)厲兌			(溜)衝陽		(注)足三里	(入)人迎, 豐隆
	<本輸>篇	(出)厲兌	(溜)內庭	(注)陷谷	(過)衝陽	(行)解谿	(入)足三里	(次脈)人迎
	<經脈>篇							(別)豐隆
手太陽	<根結>篇	(根)少澤			(溜)陽谷	(注)小海		(入)天窓, 支正
	<本輸>篇	(出)少澤	(溜)前谷	(注)後谿	(過)腕骨	(行)陽谷	(入)小海	(次脈)天窓
	<經脈>篇							(別)支正
手少陽	<根結>篇	(根)關衝			(溜)陽池	(注)支溝		(入)天牖, 外關
	<本輸>篇	(出)關衝	(溜)液門	(注)中渚	(過)陽池	(行)支溝	(入)天井	(次脈)天牖
	<經脈>篇							(別)外關
手陽明	<根結>篇	(根)商陽			(溜)合谷	(注)陽谿		(入)扶突, 偏歷
	<本輸>篇	(出)商陽	(溜)二間	(注)三間	(過)合谷	(行)陽谿	(入)曲池	(次脈)扶突
	<經脈>篇							(別)偏歷

5. 標本·根結과 經脈氣血循環說

이러한 經脈向心走行說의 최초성립은 鍼刺가 心臟을 향해 傳導되고 四肢의 鍼刺가 胸腹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초보적인 생각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經脈向心走行說의 가장 큰 약점은 인체의 氣血이 순환 운행한다는 사실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¹⁴⁾

따라서 <內經>시대에 이르러 의학이 발전하면서 臟腑와 氣血의 生理機能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고 解剖學이 발전하고 臟腑와 經脈, 經脈과 氣血, 氣血의 기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면서 經絡理論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靈樞·經水>⁴⁾에서 “夫八尺之士, 皮肉在此, 外可度量切循而得之, 其死可解剖而視之. 其臟之堅脆, 腑之大小, 穀之多少, 脈之長短, 血之清濁, 氣之多少, ……皆有大數.”라 하고 <靈樞·本臟>⁴⁾에서는 “經脈者, 所以行氣血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라 하고 <靈樞·海論>⁴⁾에서 “十二經脈者, 內屬于臟腑, 外絡于肢節.”이라 하고 <靈樞·經水>⁴⁾에서는 “經脈者, 受血而營之”라 하고 <靈樞·脈度>⁴⁾에서는 “陰脈營其臟, 陽脈營其腑, 如環之無端”이라 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經絡에 대한 관찰이 진행됨에 따라 經絡이 內臟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지표면에서 向心走行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臟腑와 통하고 밖으로 四肢皮膚와 연결되어 氣血循環을 운행하여 인체를 營養하고 인체의 氣血運行的 通路를 조절한다는 새로운 經脈氣血循環學說이 새롭게 형성되어 초기의 向心經脈走行說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중에도 <靈樞·經脈>의 十二經循環說은 經絡理論의 기초로 <內經>의 臟腑, 氣血津液, 病因病機, 診法治則등에도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經絡學說의 主流을 이루어 큰 변화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十二經循環說이 과거의 向心經脈走行說을 대신하여 陰經은 五臟에 歸屬되고 陽經은 六腑에 歸屬되어 表裏臟腑經脈이 상호연결, 상호관통되게 되어 手少陰陽經脈이 頭, 胸, 背, 腹, 四肢部에 모두 분포하고 순행하고 교

접하여 하나의 완전한 經絡氣血循行理論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經脈循環學說의 성립은 氣血이 經脈을 따라 왕복운행한다는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여 血液이 脈을 따라 순환한다는 “心主血脈”의 이론, 營衛가 脈을 따라 晝夜로 순행한다는 五十周說, 津液이 脈을 따라 순행한다는 학설등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經絡과 俞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鍼灸가 다른 臟腑와 다른 부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론의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經脈氣血循環理論의 성립에 대해 王은 <內經>중의 氣血循環理論은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시작하여 <靈樞·經脈>의 手足陰陽表裏十二經脈이 首尾銜接하는 대순환에 이르러 그 논쟁이 종결되고 마지막으로 經脈氣血循環理論이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靈樞·經脈>의 순환학설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에는 經脈에 관한 몇가지 학설이 함께 존재하는 과도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의 經脈氣血循環學說에는 약 세가지의 다른 流派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 중 하나는 經絡樹學說로 이는 식물의 根莖枝葉을 人身의 經脈과 絡脈에 비유한 학설인데 王에 의하면 <靈樞·根結>과 <素問·陰陽離合論>의 六經根結과 開闔樞 및 <靈樞·衛氣>의 十二經標本, 氣街는 바로 經絡樹學說의 주요한 내용이고 根結과 標本은 樹木에서 象을 취한 것이므로 용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經絡樹學說에서 經脈의 根과 本은 균일하게 사지말단에 있고 結과 標는 頭, 胸, 腹部에 있으며 經脈의 순행은 <足臂>의 十一脈 向心性 循行의 방향을 간직하고 있다. 또 榮衛氣血은 陰出于陽, 陽入于陰과 裏出于表, 表入于裏의 방식으로 陰陽經脈사이와 形體表裏사이를 출입순환하고 움직이면서 자연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낮에는 肌表에 充盛하고 밤에는 內臟에 充盛하는 晝夜盛衰의 規律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素問·陰陽離合論>⁴⁾에서 “陰陽鍾鍾,

積傳爲一周, 氣理形表, 而爲相成也”라 한 것은 陰經과 陽經사이의 氣血循環과 形氣表裏出入의 晝夜盛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相補相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靈樞·衛氣>⁴⁾에서 “其浮氣之不循經者爲衛氣, 其精氣之行于經者爲營氣. 陰陽相隨, 外內相貫, 與環之無端.”이라 한 것은 營氣가 脈에서 나오면 衛氣가 되고 衛氣가 脈으로 들어가면 營氣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외에도 <素問·皮部論>⁴⁾에서 “故在陽者主內, 在陰者主出, 以滲于內, 諸經皆然”이라고 한 것도 모두 陰陽表裏出入의 순환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그 중에서도 六經 根結과 三陰三陽表裏出入의 開闔樞이론은 經絡樹學說의 早期 이론으로 <足臂十一脈灸經>과 직접적인 연원관계가 있는데 즉, <足臂>에 手陽經에는 臂太陽, 臂少陽, 陽明의 세 經脈이 있고 手陰經에는 臂太陰, 臂少陰의 두 經脈만 있어서 陽三陰二로 陰陽이 서로 대칭되지 않는데 이것은 <素問·陰陽離合論>과 <靈樞·根結>이 成書될 무렵에는 手經이 陰陽表裏配偶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足六經의 根結만 말하고 手經은 생략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靈樞·衛氣>에서는 六經의 標本을 말하면서 手足陰陽 十二經脈에 다 本과 標가 있을 뿐만 아니라 經脈과 經脈사이에서 相互交通하는 氣街라는 구조가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데 氣街는 頭, 胸, 腹, 脛의 네 부분에 있으므로 四街라고 하였다.

따라서 王은 이상으로 볼 때 六經標本과 六經皮膚는 六經根結과 開闔樞理論이 발전한 것으로 經絡樹學說의 후기이론으로 皮膚浮絡과 臟腑의 관계 및 氣街의 生理, 病理, 症候, 治法은 후세 經絡, 俞穴, 鍼灸學說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가진다고 하였다.¹⁵⁾

이상을 총괄하면 標本과 根結의 의미는 대체로 비슷하고 標本과 根結理論의 성립목적도 비슷한 것으로 經脈의 근원을 탐구하고 經絡의 이치를 연구하여 鍼灸治病의 원리를 드러내고 鍼灸治療의 기술과 임상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靈樞>에서 논한 標本·根結의 走行이 모두 四肢에서 起始하여 頭面, 軀幹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經絡의 走行과 연관시켜 보면 <靈樞>가 쓰여지기 前時代인 戰國時代에는 四肢를 經絡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관찰하여 초기의 向心經脈 走行說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 여러사람들의 학술이 집대성되면서 經絡이 三陰三陽, 五臟六腑와 연계되어 經絡內 氣血循環의 循環說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靈樞·本輸>의 穴位가 向心排列이고 標本·根結의 走行이 四肢에서 頭面, 軀幹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陰陽과 手足으로 經脈의 명칭을 정하고 발전해서 臟腑, 手足, 陰陽으로 經脈의 명칭을 정하고 각 經脈과 臟腑가 명확한 귀속관계가 있다는 점, 확실한 穴名이 手足六陽經의 頸部의 배열순서에서 나타나고 이 배열순서가 현재까지 사용된다는 점 등을 보면 많은 내용이 이미 <靈樞·經脈>의 이론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다가 臟腑 手足 陰陽 十二經脈의 井, 榮, 俞, 經, 合 理論이 고대의 向心經脈走行說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五輸穴의 向心排列은 標本, 根結 및 根, 溜, 注, 入에 비해 더욱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현재의 임상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十二經循環說이 출현한 이후에도 標本·根結 이론은 鍼灸臨床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6. 標本·根結과 임상응용

標本·根結이 침구임상에서 가지는 의미는 四肢 肘膝 關節이하의 本部和 根部의 穴位는 그 穴位가 소재하고 있는 局所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頭, 面, 胸, 背部的 질환도 치료할 수 있으며 經脈과 臟腑가 밀접한 관련이 되고 經氣가 上下, 內外로 상응하고 있어서 四肢의 肘膝關節 이하(本部, 根部)의 穴을 取穴, 刺鍼하여 遠位部(標部, 結部)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이는 鍼灸臨床에서 응용되고 있는 遠隔取穴과 局所取穴의 이론적 근거

가 된다.^{1,3)}

鍼灸學에서 <靈樞·本輸>의 五輸穴은 四肢나 肘膝關節이하에 있으면서 사지말단으로부터 軀幹을 향해 배열되어 있고 經脈 原氣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十二經脈의 기본 要穴로 根結의 根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상에서 原穴, 絡穴, 五輸穴, 八脈交會穴등이 모두 根部에 위치하므로 이들을 사용하는 각종 鍼刺法은 모두 標本·根結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素問·五常政大論>⁴⁾의 “病在上, 取之下, 病在下取之上”하고 <靈樞·終始>⁴⁾의 “病在上者, 下取之, ……………病在頭者, 取之足”하는 것과 張⁷⁾의 “下肢足三陽을 取하여 上部病을 치료한다”는 것과 寶⁵⁾의 “寫絡遠鍼, 頭有病, 足上鍼”하는 등은 모두 遠道刺法을 확대해석하여 질병부위와 치료혈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四肢肘膝以下の 穴로 頭身의 질병을 치료하는 配穴法과 頭目的 穴로 四肢病을 치료하는 處方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遠道刺法도 역시 標本·根結 이론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標本·根結에 따른 유사한 取穴法은 이외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素問·咳論>⁴⁾에서는 “治臟者, 治其俞, 治腑者, 治其合, 浮腫者, 治其經”이라 하고 <靈樞·五亂>⁴⁾에서 “其在于心者, 取之手少陰心主之輸”라 하고 <靈樞·厥病>⁴⁾에서 “腎心痛也, 先取京骨, 崑崙, 拔鍼不已取然谷. 胃心痛也, 取之大都, 太白”라 하고 <靈樞·熱病>⁴⁾에서 “熱病而汗出且, 及脈順可汗者, 取之魚際, 太淵, 大都, 太白……………風痺身反折, 先取足太陽及臑中及血絡出血, 中有寒, 取三里. 癰, 取之陰驕及三毛上及血絡出血.”이라 한 것등이 모두 根本이 되는 穴을 取穴하여 上部와 臟腑病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임상에서 遠位取穴과 局所取穴을 결합하는 配穴法도 標本·根結의 이론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Ⅲ. 結 論

<靈樞·根結>과 <靈樞·衛氣>의 標本·根結 이론과 十二經脈 流走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標本·根結 이론은 經脈에서 四肢와 頭面, 軀幹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四肢部는 根·本이 되고 頭身部는 結·標가 되어 經脈의 연계성과 四肢 穴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2. 標本·根結 이론은 十二經脈의 原氣가 四肢末端으로부터 頭面, 軀幹, 內臟에 작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經脈原氣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3. 標本·根結 이론은 <靈樞·本輸>篇을 중심으로 한 向心性으로 순행하는 原氣 流走의 經脈體系를 기초로 한 이론이다.
4. 標本·根結 이론은 鍼灸 臨床에서 응용되고 있는 遠隔取穴과 局所取穴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1986, pp.116~120, 121~123.

7. 張景岳 :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卷七 pp.175~176, 207.
8. 吳紹德 等 : 陸瘦燕鍼灸論著醫案選, 人民衛生出版社, 上海, 1984, p.19~23.
9. 李東垣 :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9, p.103(脾胃論卷中), 105(脾胃論卷下).
10. 王九思等 集注 : 難經集注, 臺灣中華書局, 中華民國74年, p.46~48, 189~190, 270~271.
11. 向之中 : 鍼灸經穴與原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 8~15,
12. 안창범, 김길현 : 標本·根結·氣街·五輸穴과 經脈原氣와의 관계에 관한 考察, 경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논문집(第九輯), 1989, pp.461~482.
13. 馬繼興 :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88~104.
14. 周仕明 : 從<內經>看經絡理論的形成與完善過程, 山東, 山東中醫學院學報 第18卷 第3期, 1994, pp181~183.
15. 王玉川 : 運氣探秘, 北京, 華夏出版社, 1993, pp.60~64.

參 考 文 獻

1. 谷世喆 : 根結標本理論與應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北京, 1994, 제 17권 2기, pp14~16.
2. 李鼎 主編 : 鍼灸學釋難, 上海中醫學院出版社, 上海, 1986, p.49~50.
3.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 鍼灸學(上), 서울, 집문당, 1991, pp.104~110.
4. 張隱庵·馬元臺 合註 :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聯國風出版社, 臺聯, 中華民國七十年, pp.1~19, 39~46, 57~61, 77~131, 158~160, 165~172, 204~208, 321~326, 424~436.
5. 楊繼洲 : 鍼灸大成, 文光圖書有限公司, 臺聯, 中華民國七十年, p. 65
6.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